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경제이론과 그 방법론에 관하여

이인호(경제학부 부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1976년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80년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경제학부에서 미시경제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게 된지 이제 반년 남짓 되었지만 아직은 낯선면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 경제이론의 위치와 그 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UCLA에서 학위를 따고 지난 8년간 영국 Southampton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국내실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경제학의 연구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경제학연구에 종사하더라도 최근의 방법론을 사용 않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대의 경제이론에 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과연 그러한 수학적인 방법론을 써서 추상화 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의 복잡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정령 현대의 경제이론은 소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재생산하기 위해 현실적 유용성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무용한 것일까요? 또 이론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수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토론에서 배제시키는 진입장벽으로서 역할밖에 하지않는 것일까요?

제가 여태껏 보아온 경제이론가들은 다른 어느 누구 못지 않게 현실에 가까이 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이론가들도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론의 개발에 따른 반대급부를 아는 까닭에 현실성 있는 이론 개발에 매우 열성입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이론적인 면에 밝은 경제학자들이 현실에 가장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Wright 형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들이 처음에 단지 몇 백 미터를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란 물체를 통해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이익이 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모해 보이기만 했던 연구가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동항법장치 등 현실에서 유용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장치들은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처음의 조잡한 모형을 개선하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존 이론의 현실적 적용만을 중시하여 Wright 형제의 비행기를 쓸데없는 지적 유희로만 치부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제대로 날 수 있는 현대적인 비행기를 갖지 못하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Wright 형제가 그랬듯이 모든 경제학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이론이 인간생활에 유익한 분석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가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러한 연구가 기존의 사고틀을 뛰어 넘고자 하는 데에 기인하곤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제외한 요소들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추상화는 연구대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현실적'이란 용어는 이론을 통해 필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실이 아닙니다.

다음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경제학은 이제 수학의 종속학문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최근의 경제이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수학과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제학자들이 단지 그 방법론에 예속이 되어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세계의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은 수학자이거나 통계학자이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에게 경제학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 대답은 분명 '아니오'일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수학이나 통계학은 하나의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의 경제이론은 수리적인 접근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시장의 파생상품가격예측을 위한 Brownian Motion 이론 적용을 들 수 있겠지요. 또 최근에는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매문제와 전략적인 투표행위의 분석 등이 가능하게 된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경매문제의 분석은 여러 산업경제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전략적 투표행위의 분석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경제체계가 진화해 나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현실적인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Dynamic programming이란 수학적 분석도구도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많은 지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많은 분석도구들이 30년 전 만해도 일부 기술적인 이론개발을 하는 학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푸는 데 꼭 골치 아픈 수학이 필요한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미 간단한 논리로 도달할 수 있는 답보다도 진일보된 답을 원하신다면 분명 수학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언어는 논리전개에 있어서 비약과 비합리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실용가치가 없는 경제이론의 개발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이 현상설명에 도움을 주는가 아닌가는 이론이 사용하는 모형이 현실을 세세히 묘사하는가 혹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만을 써서 도출되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듯 하군요.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이 여러

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분석도구만을 사용하여 연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푸실 수 있고 굳이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없겠지요.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교수동정

1. 인사

안병직	정년퇴직	2001.08.31
박준용	교수로 승진	2001.10.01
김대일	부교수로 승진	2001.10.01

2. 수상

김세원	30년 근속표창	2001.10.15
이성휘	20년 근속표창	2001.10.15
강광하	20년 근속표창	2001.10.15
홍원탁	제20회 다산경제학상 수상	2001.10.15

학부행사

1. 교무

1) 2000학년도 후기 졸업식(2000. 8.30)
▣학위수여자
박사 : 권현정, 김경록, 김종호 이상 3명
석사 : 류상윤 등 13명
학사 : 엄석현 등 50명

2) 2001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김경록,「국채경매방식이 경매수입에 미치는 영향」,2001년 8월
▣권현정,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2001년 8월

2. 200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정

▣학부 : 발전기금(특정 4명), A급(40명), B급 (18명), C급(275명), 계 337명
우등장학생 : (임선혜외 9명)
▣상대동창회 향상장학금(15명)
▣대학원 : 발전기금(특정 2명, 일반 2명), B급(4명), C급(35명), 계 43명

3. 입시

1) 2001학년도 2학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정원외 입학(대학원과정)
▣학사과정 국제 교류생 3명 선발

2) 2001학년도 대학원 후기 모집
▣입학고사일 : 2001. 06. 29(금)
▣경제학부 선발 인원 : 석사 7명, 박사 1명

3) 2002학년도 대학원 특차 모집
▣외국어시험 : 2001. 08. 17
면접 및 구술고사 : 2001. 08. 23
▣석사 34명 및 박사 9명 선발

4)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비교과 영역 질적평가 :
9. 19(수) ~ 9. 22(토)
▣비교과 영역 양적평가 :
9. 19(수) ~ 9. 22(토)
▣면접 및 구술고사

4. 행사

1) 김태성 기념강좌
▣일시 및 장소 : 2001. 06. 12(화) 박물관
▣초빙강사 : Herve Moulin 교수
▣주제 : 규범적 미시경제이론과 사회계약

2) 안병직 교수 정년퇴임 고별강연 및 논문집 봉정식
▣일시 : 2001. 08. 24(금) 오후 3:30 ~ 7:30
▣장소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3) 경제연구소 ASP 제1기 수료식
▣일시 : 2001. 08. 17(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강당

4) 경제학부 초청강연
▣일시 및 장소 : 2001. 10. 19
오후 3시?4시
경영대 국제회의실
▣강연자 : Paul Krugman
▣강연제목 : New World Economy and the New Financial System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그 동안 경제학부(구 경제학과 ·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와 경제연구소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신 동문 · 학부모 명단입니다. 경제학부 교수 일동은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출연자		
(주)경남은행	강신철 은행장	(1천만원)
태성기업	김연탁대표 (고 김태성 교수 부친)	(5억원)
한국주택은행장	김정태 은행장	(10억원)
ASSET PLUS 투자자문(주)	노옥현대표이사	(1억원)
장기신용은행	봉종현 은행장	(6천 5백만원)
제일제당(주)	손경식 회장	(1억원)
태화칼슘(주)	심범구 대표	(1천만원)
코오롱그룹	이동찬 회장	(2천5백만원)
단암장학재단	이봉서 이사장	(2천만원)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2억원)
한수통상(주)	장원석 대표이사	(1천3백만원)
UTC벤처(주)	정병열 대표이사	(2억원)

1천만원이상 - 1억미만 출연자		
박우희(명예교수)	상대19회 동창회	ASP1기동문일동
박증대(동문)	임종철(명예교수)	

1백만원이상 - 1천만원미만 출연자		
강종웅(학부모)	민영빈(동문)	이윤섭(동문)

곽　헌(동문)	박　승(동문)	이재병(학부모)
김규연(동문)	박맹호(학부모)	이제용(동문)
김세원(교수)	박영철(학부모)	이준구(교수)
김승정(학부모)	방길혁(학부모)	이지순(교수)
김영구(학부모)	배무기(동문)	이황배(학부모)
김영희(동문)	손수민(동문)	전영섭(교수)
김온순(학부모)	송병락(교수)	정운찬(교수)
김완진(교수)	양승현(동문)	정한성(동문)
김인준(교수)	오광욱(학부모)	조성근(동문)
김정태(동문)	오수종(학부모)	최명걸(학부모)
김형영(학부모)	이경태(동문)	최정옥(학부모)
나웅배(동문)	이기선(동문)	표학길(교수)
남　용(동문)	이순국(동문)	Gienn H.Bryce
무역학과81학번일동	이용동(동문)	

10만원 이상 – 1백만원미만 출연자		
강광하(교수)	백종회(학부모)	이원기(동문)
구본천(동문)	백태영(동문)	이원룡(학부모)
구웅서(동문)	변금오(동문)	이은택(동문)
구을회(학부모)	변병주(동문)	이인일(동문)
구정회(동문)	서해량(동문)	이인표(동문)
구정희(동문)	성연철(동문)	이재경(동문)
권도하(학부모)	손　철(동문)	이정보(동문)
권만식(동문)	손태화(동문)	이종구(동문)
권용수(동문)	송일범(동문)	이종연(동문)
권종선(동문)	송정환(동문)	이종엽(동문)
권찬준(동문)	신대영(동문)	이찬구(동문)
권희구(동문)	신상순(학부모)	이창숙(동문)
김　영(동문)	신상우(학부모)	이필곤(동문)
김　훈(동문)	신석정(동문)	이필선(동문)
김도집(동문)	신세길(동문)	이한열(동문)
김락호(동문)	신언성(동문)	이한희(동문)
김명완(동문)	신용암(학부모)	이헌창(동문)
김명호(동문)	심석주(학부모)	이호석(동문)
김병철(동문)	심윤학(동문)	이흥식(동문)
김상희(동문)	안태병(동문)	이희순(동문)
김선정(동문)	안태호(동문)	인수환(동문)
김성진(동문)	양동휴(교수)	임동승(동문)
김연수(동문)	양시영(동문)	임채주(동문)
김영굉(동문)	염주영(동문)	장기남(동문)
김용기(동문)	예병우(동문)	장덕진(학부모)
김용술(동문)	오창환(동문)	장동수(동문)
김윤하(동문)	우완식(동문)	장용수(동문)
김일영(동문)	유노상(동문)	장지상(동문)
김재호(동문)	유병인(동문)	정　진(동문)
김정근(동문)	유창록(동문)	정기철(동문)
김정환(동문)	윤덕순(학부모)	정방언(동문)
김정훈(동문)	윤봉용(동문)	정상호(학부모)
김종대(학부모)	윤세익(동문)	정선만(학부모)
김종서(동문)	윤용찬(동문)	정수백(학부모)
김종석(동문)	윤우현(동문)	정수창(학부모)
김종욱(동문)	윤원식(동문)	정태영(동문)
김진기(동문)	윤재우(동문)	정호택(학부모)
김진화(동문)	윤재호(동문)	정흥교(동문)
김태두(동문)	윤준병(동문)	조　신(동문)
김현곤(동문)	윤철재(동문)	조남석(학부모)
김형영(동문)	윤희성(동문)	조대형(동문)
김희전(학부모)	이　근(교수)	조동선(동문)
남동균(동문)	이　연(동문)	조동일(동문)
남문승(동문)	이갑수(학부모)	조동철(동문)

남영진(동문)	이건삼(동문)	조문제(동문)
남윤우(동문)	이경원(동문)	조봉래(동문)
남정우(동문)	이경주(동문)	조수영(동문)
명영삼(학부모)	이경호(동문)	조승헌(동문)
문동준(동문)	이광수(동문)	조용웅(동문)
문승영(동문)	이규성(동문)	조준호(동문)
문연태(동문)	이근우(학부모)	조택구(동문)
문태갑(동문)	이근태(학부모)	주정식(동문)
민경재(동문)	이명환(동문)	주창돈(동문)
민경희(동문)	이무학(동문)	진영수(동문)
박　진(동문)	이박형(학부모)	차윤소(동문)
박경상(동문)	이백수(학부모)	채병윤(동문)
박계동(학부모)	이병국(동문)	채오병(동문)
박동규(동문)	이병규(동문)	최강웅(동문)
박동묘(동문)	이봉구(학부모)	최문환(동문)
박성수(학부모)	이봉군(학부모)	최병준(동문)
박세흠(학부모)	이상경(동문)	최선곤(동문)
박수건(학부모)	이상배(학부모)	최성래(동문)
박웅서(동문)	이상안(동문)	최성식(동문)
박재하(동문)	이상은(동문)	최영두(학부모)
박정수(동문)	이상희(동문)	최용걸(학부모)
박정진(동문)	이석우(동문)	최익재(동문)
박정호(동문)	이석주(동문)	최종인(동문)
박종도(동문)	이성구(동문)	하만석(학부모)
박종태(동문)	이성렬(동문)	하진오(동문)
박창규(동문)	이수빈(동문)	하홍태(동문)
방진욱(동문)	이순학(동문)	한규열(동문)
배기수(동문)	이영규(동문)	한영근(학부모)
배종규(동문)	이용석(동문)	허　길(동문)
배종열(동문)	이용원(동문)	허종욱(동문)
배종호(동문)	이용이(동문)	홍순모(동문)
배진규(학부모)	이용진(동문)	홍영하(학부모)
백락민(학부모)	이용휘(동문)	황용현(학부모)

10만원 이하 출연자		
강병현(동문)	박영욱(동문)	이덕근(동문)
강승구(동문)	박영호(동문)	이덕선(동문)
강영철(동문)	박은진(동문)	이상건(동문)
강창준(동문)	박종성(동문)	이석제(직원)
고상민(동문)	박종오(동문)	이선호(동문)
구교형(동문)	박진배(동문)	이승돈(동문)
구자훈(동문)	박찬일(동문)	이영생(동문)
권우영(동문)	박태호(동문)	이용호(동문)
권찬준(동문)	박화순(동문)	이장익(동문)
권태명(동문)	백승해(동문)	이제세(동문)
김　령(동문)	부윤경(동문)	이종섭(동문)
김경호(동문)	상영조(동문)	이종현(동문)
김대중(동문)	서　행(동문)	이준근(동문)
김동수(동문)	서광열(동문)	이학영(학부모)
김동현(동문)	서덕규(학부모)	장기철(동문)
김두겸(동문)	서병후(동문)	장석준(동문)
김명수(동문)	서성석(학부모)	장종회(동문)
김병철(동문)	서정희(동문)	장충기(동문)
김상민(동문)	설　유(동문)	전건호(동문)
김상준(동문)	설진후(동문)	전창기(동문)
김성배(동문)	성락후(동문)	정　열(동문)
김성용(동문)	소일섭(동문)	정경원(동문)
김순동(동문)	손그흥(동문)	정문모(동문)
김영구(동문)	손병두(동문)	정혁훈(동문)
김영근(동문)	손정삼(동문)	제정호(동문)
김영생(동문)	송필호(동문)	조문규(동문)

김영태(동문)	신의섭(학부모)	조현문(동문)
김영하(동문)	심창순(동문)	진윤구(동문)
김재성(동문)	양승현(동문)	진태환(동문)
김재진(동문)	염치섭(동문)	채규대(동문)
김재천(동문)	예종호(동문)	최강해(동문)
김정욱(동문)	오동순(동문)	최병로(동문)
김종원(동문)	오장환(동문)	최생림(동문)
김준연(동문)	원경연(동문)	최우승(동문)
김진태(동문)	위봉택(동문)	최은용(동문)
김진호(동문)	유관필(동문)	최지성(동문)
김택희(동문)	유길수(동문)	하진오(동문)
김희상(동문)	유노상(동문)	한창곤(동문)
노영우(동문)	유돈규(동문)	홍기영(동문)
노형식(직원)	유준열(동문)	홍대원(동문)
류돈규(동문)	유진용(동문)	홍사목(동문)
문공훈(동문)	윤영규(동문)	황일성(동문)
박　우(동문)	이강일(동문)	황호재(동문)
박대원(동문)	이관우(동문)	
박상진(동문)	이근우(동문)	
박세훈(동문)	이길한(동문)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

류근관(경제학부 부교수)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레샴의 법칙이 생각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대체 무슨 말인가? 경제사학자는 예를 들어 답한다. 역사적으로 기계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냈다. 양모산업의 발달에 따라 양은 사람을 초원에서 몰아냈다.

내가 드는 예는 조금 천박하다. 도박판을 생각하자. 시중에는 현금인 양화와 함께 칩이라 불리는 악화가 함께 유통된다. 칩은 현금과 교환가능하다. 애당초 칩에 상응하는 만큼의 현금을 물주의 방석 밑에 묻어 두었기 때문이다.

판이 종반을 향해 치달을 즈음 칩과 현금의 교환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유통되는 칩의 양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물주가 과연 약속대로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지도 걱정된다. 나아가 칩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가 파장 후 일시에 환전하게되면 치부한 사람으로 몰린다. 개평을 뜯길 가능성이 크다. 딸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을 챙겨 거금을 따고서도 시침 뚝 떼고 있는 얌체를 대신하여 빈민구제사업의 부담을 혼자 떠 않아야 한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 일찌감치 칩은 남에게 주어 시중에 유통시키고 현금은 손아귀에 틀켜 쥐자. 이리하여 양화인 현금은 유통과정으로부터 사라진다. 악화인 칩만이 판을 치게 된다.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악화가 양화에 의해 밀려나는 모습은 도처에서 목격된다. 예의를 지키는 양반과 무례한 상놈이 인터넷에서 만나면 양반이 자리를 뜨고 상놈이 판을 설치게 된다. 좋은 정보는 잘 숨겨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시원찮은 것이면 남에게 주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다. 저질 정보가 난무하게 된다.

요부는 조강지처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친 여인이 어찌 치장에만 전념한 색시의 교태를 따라갈 수 있으랴. 학구적인 교수보다는 정치적인 교수가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그 프리미엄도 누린다. 물론 모든 정치적 행위가 악은 아니다. 교수의 중심이 정치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의 유능한 의사들이 돈을 찾아 고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남하한다. 미국에서 돈벌기가 좋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국내은행보다 외국계 은행을 선호한다.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도 받고 돈도 벌기 때문이다. 누가 애국심의 이름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까.

같이 잘살자는 사회주의의 이념은 생존경쟁에서 참패를 당해 죽어가고 있다. 북유법 나라들의 평등지향적 사회, 경제체제는 미국식의 냉엄한 그것과 맞부닦쳐 본래 모습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다. 미풍양속도 지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하는 ‘꿩먹고 알먹기’ 식의 방안은 없어 보인다.

좋든 싫든, 행이든 불행이든, 흥부야 기가 막히든 말든 사업이 번창하는 쪽은 놀부다. 잘해보자고, 잘하면 된다고 번번이 외쳐 보았자 잘되지 않듯, 도로건설 없이 시민의 도덕에 호소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듯, 현실과 괴리된 도덕과 이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평등을 외쳐대던 동구권의 지도자들은 시대가 변한 지금 스스로의 변신에 불평등하게 앞서 있다. 중국 반환 직후 홍콩의 아파트 값은 많은 사람의 예측과 달리 왜 뛰었는지 생각해 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금도피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선창하던 사람들이 독재의 옹호에도 능력을 발휘한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던 정부관리가 독과점업체에 스카웃되어 단속의 예봉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나, 판검사가 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하여 이른바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나 도덕의 무력함을 알려주기는 마찬가지다.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 도덕이 설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잘해보자고 강변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일본은 없다고 쓰면 일본은 그만 없어지는가, 양심을 갖추라고 떠들면 그걸로 몸 속 가득 찬 이기심이 사라지는가. 착각은 악몽처럼 일찍 깰수록 좋다. 선악의 선택은 어차피 각자의 몫이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코스닥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

강정호

코스닥증권시장 대표이사

코스닥은 생긴지 5년만에 세계 제17위 시장이 되었다. 신기술시장으로서는 나스닥 다음의 세계 제2위 시장이다. 지난 30개월 코스닥시장을 키우고 이끌어온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경제학과 동문들께 코스닥시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구하는 계기가 되고 또 나아가 변화, 학습, 미래가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다. 사장이 된게 99년 4월 우리경제가 IMF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이 막 보이던 때였다. 오일쇼크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높은 실업 및 서울역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때이기도 하였다. 1980대 초에 증권정책을 담당하였던 인연으로 코스닥 사장직을 자원할 수 있었다. 28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재경부 동료들에게 '자본주의 꽃을 가꾸기 위하여' 라는 아래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제가 이번에 코스닥증권(주) 사장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생각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앞으로 여명이 대략 40년 남았기 때문에 90년 인생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몇 발작 뒤에서부터 뛰어나가야 비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앤드류 매튜스라는 호주사람이 「마음가는 대로 하라('Follow Your Heart')」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명예, 부도 자연히 뒤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갖는 시대적인 중요성입니다.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과제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아껴주셔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스닥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당시의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1.3%의 규모에 불과하였으며 300여개 종목중 반수는 하루 한 주도 거래되지 않았고 빨간딱지에 해당하는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이 180여개에 이르렀다. 태생부터가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이라는 틀 속에서 증권회사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직원수 21명, 임원 3명, 직급 9계급, 신생노조 등 한심한 조직이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과 함께 거래대금이 폭증하면서 전산용량이 부족하여 매매체결 지연사태가 99년말까지 지속되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코스닥은 법적, 인적, 인프라 모든 면에서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시장이었다.

직원들의 의식과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 몇 가지 시도를 하였다. 우선 "市場中心 顧客中心" 8글자로 된 현판을 내걸었다. 나스닥 자브 회장과 중국 주룽지 총리가 나스닥 거래량이 뉴욕거래소를 앞지르는 그래프 앞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구하여 "We Have a Dream" 이라고 새겨놓았다. 정말 운이 좋았던 덕택인지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로부터 전산전문인력과 인터넷전문인력을 뽑아 올 수가 있었다. 몇 번의 구애 끝에 이들이 코스닥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거래소보다 훨씬 앞선 전산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또 코스닥의 홈페이지는 유사기관 중 전국 2위를 달리는 유명사이트가 되었으며, 이메일·결재·회계·인사 등 모든 업무기반이 전산화되고 있다.

우리회사에는 캐치프레이즈가 많다. 「코스닥보국」「4C운동」「GSIP」「5%」「Kosdaq Expect Excellence」「Kosdaq Way」등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코스닥을 위하여, 한국경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특히 GSIP는 Global Standard와 InvestorProtection의 준말로서 연초이래 회사의 업무지침이 되고 있다. 정책세미나 주제를 GSIP로 할 정도이다. 이제는 직원 숫자가 80명이 넘는다. 대학원 졸업자가 30%, 여직원 숫자도 30%에 가깝다. 전직원 토익점수 평균이 672점이며, 20%가 900점이 넘는다.

지난 주말에는 양평에서 새로운 CI선포식을 하였다. CI결정, 선포식 행사를 직원들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자리에서 변화(change)와 학습(learning)을 회사운영의 기본으로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시대에 항상 변화에 대처하고 끊임없는 지적향상 노력을 해야만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도 독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은 문제가 많다. 일부벤처기업가의 부도덕성, 불공정한 거래에 둔감한 증권업자 및 투자자,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수십년간 강조하면서도 막상 실천에는 더딘 정책결정자들 모두 문제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코스닥이 한국의 사회·경제·문화 등 제반 현실수준을 넘기는 어렵다. 공정한 제도·관행과 심판기능이 절실하다. 그러나 또 되돌아보면 IMF이후 지배구조, 회계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괄목하여 수년 내에 큰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코스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인프라이다. 한국의 내일을 짊어질 IT등 지식기반 산업의 우량젖줄이 코스닥인 것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고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창출되어야만 일본벽·중국벽을 넘을 수 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시간은 자꾸가고 있다. 코스닥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 (Kosdaq's Future is Korea's Future)이다.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 동문들에게도 변화, 학습, 미래라는 세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친다.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여간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나는 왜 벤처기업을 선택했나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이사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1998년에 창업을 해서 r114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시세, 매물, 분양정보, 분석기사 등을 제공해왔다.

이 회사에 오기 전까지 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연구원으로서 10년 가까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데이터의 부족과 현장감의 결핍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고민이 항상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각종 경제현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초 자산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대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힘든 일의 연속이며, 조사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GDP나 물가지수와 같은 중요한 경제데이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료는 자산규모나 중요성에 비해 대단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공되어 왔다. 공시지가와 같이 과세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정부조사비가 들어가는 국가 데이터만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의 소비경제나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IMF 위기 이후 몰려 들은 외국기업들은 그나마 축적된 지가자료를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부동산가치를 소득접근법으로 측정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원가법과 상치된다. 그렇지만 이미 부동산이 다른 수익성 자산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못할 경우 정보독점에 따른 준지대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된다. 과거 우리는 부동산투기라는 현상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속하고, 광범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발전적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부동산정보의 생산은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인쇄매체 형식으로 처음 부동산매물, 시세 자료를 제공하는 잡지들이 선을 보였다. 발행초기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이러한 정보지들은 인쇄매체라는 한계로 인해 대중화가 더디게 진행된 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부동산정보시장도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정보를 공유하는데 따르는 시차가 거의 없어졌고, 정보이용료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업들도 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생산은 인쇄매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쇄매체보다 훨씬 광범하게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생산의 주기도 실시간(real time)에 가까워야 한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반대로 만약 데이터 생산기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황으로 역전되면, 데이터를 기초로 큰 수익을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단위 당 투자비용이 적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에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형태는 벤처사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각한 점이다. 즉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그것을 기초로 최고의 데이터 생산기관이 되어 생산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99년에는 인터넷 벤처붐이 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벤처자금이 들어오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데이터 생산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만이 아니라 오피스 데이터도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생산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비용도 회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데이터 생산기관이었다면,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는 생활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 데이터를 파는 것은 처음 생각보다 한계가 컸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데이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천개의 중개업소와 관리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이들과 소비자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연결하는 서비스가 유료화되고, 그것이 주요한 사업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생각한 데이터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소박한 바램은 데이터를 사업의 부산물(by-product)로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이 사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큰 지주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한 각종 인덱스(index), 솔루션(solution)의 생산은 고객들에게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혹자는 데이터 생산이라는 것이 좋은 공공재인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생산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좋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나 공급자들 모두가 우리의 서비스를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나는 지난 2년여간 경험을 통해 미완성이지만 가능해 보이는 이 실험을 계속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만약 벤처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이러한 시도를 할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연구소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 벤처정신이 도덕적 해이로 얼룩지면서 퇴락한 면도 있다. 그렇지만 벤처정신을 통해 우리가 학교나 연구실과 같은 온실에서 캐내지 못했던 현장 데이터라는 보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생생한 진실을 분석하는 것도 여전히 경제학도들의 몫일 것이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6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동문기고2
·학생기고1
·학생기고2

내가 생각하는 대학원 자치회

류상윤

경제학부 석사졸업

자치회에 관해서, 그것도 경제학부의 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보는 '경제학부 소식지'에, 글을 쓴다는 것이 꽤 부담스럽다. 무엇이든 첫인상이 중요한 것인데, 내 글 하나가 새로 시작하려는 모임의 첫인상을 잘못되게 심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도 글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은, 첫째로는 자치회 준비모임에서 내가 제일 한가하기 때문이고(지난 8월에 석사학위를 받고 군에 가려고 쉬고 있다), 둘째로는, 이게 사실 중요한 이유인데, 자치회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지난 초여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회를 새로 만들자'고 뜻을 모은 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가시적인 활동도 한 바 있지만, 아직도 경제학부의 많은 교수, 학생들에게 이 모임의 존재는 낯설다. 이런 때에 '경제학부 소식지'라는 매체가, 좀더 많은 이들에게 자치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자치회'는 왜 필요할까

경제학부의 특징은, 학부나 대학원 모두 사회대안의 다른 학과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수가 적은 다른 학과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다. 바로 '개인주의'이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 '개인주의'가 경제학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생일 때, 한동안 '집단문화'가 없는 경제학부의 모습을 싫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가 적은 학과를 다니는 친구의 모습-우르르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모습, 조금만 개인적인 행동을 해도 금방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했던 그 개인주의문화가 바로 경제학부의 장점임을 깨달았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도, 수가 적은 학과와는 다르다. 학생들이 화폐 외에 노무(勞務)로도 학비를 내야 하는, 대신에 교수는 그 제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문화가 경제학부대학원에는 없다. 그만큼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연구할 수 있다.

어찌보면, 자치회가 한동안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덩치 때문일 것이다. 수가 적은 학과에서는 굳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치회를 만들려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마치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듯이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자치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경제학부대학원처럼 덩치가 크고 학생들의 생활공간 또한 흩어져있는 경우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자치조직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것일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마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경제학부대학원이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기구로서 자치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문'과 '연구'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공동연구'도 '개인'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집단연구'는 아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사회에 속한 개인이 학문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 사회의 체계 즉 대학원의 체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치조직은, 바로 그 대학원의 체계가 개인의 학문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늘리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다.

'자치회준비모임'의 활동

자치회 준비모임은 지난 초여름, 나를 포함해 자치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경제학부대학원생들의 생활단위가 '연구실'이기 때문에, 모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구실의 대표들이 반드시 참석하게 하였고, 따라서 어찌보면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회라고도 할 수 있다.

준비모임은 지금까지 자치회의 역할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를 진행시켜오고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각 연구실에 필요한 물품에 관해서, 학부사무실과 협의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는 경제학부의 '커리큘럼'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앞으로 대학원생들간의 학문교류도 추진하려고 한다.

앞서 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바로 '준비모임'의 활동에서 발견된다. 연구실환경개선노력, 커리큘럼개선노력, 대학원생들간의 학문교류추진, 이 세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좀더 도식적으로 보자면, '학생-교직원(행정당국)', '학생-교수', '학생-학생'이라는 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치회를 이렇게 봐주십사

그런데, 이쯤에서 앞으로 자치회 또는 자치회준비모임의 활동에서 혹시나 있게 될지 모를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바로 위에서 '학생-교직원(행정당국)', '학생-교수', '학생-학생'이라는 세 가지 틀을 말했는데, 이 중 앞의 두 틀에서는 협의가 중요할 것이며 협의 중에는 간혹 갈등도 나타날 것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갈등이 마치 자치회의 본질적인 의도인 것처럼 비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자치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교직원'과 '교수'라는 두 집단에 맞서 학생의 이익을 높이는 게 그 활동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치회는 어디까지나 자치조직이며, 그 주된 활동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다. 그 의사소통의 결과가 학생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교직원' 또는 '교수'와 함께 그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자치회라는 조직이, '교수'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미시', '거시' 강의의 분리개설 같은 문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자치회가 그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자치회의 장기적인 과제도, 나는 경제학
부대학원에 관한 연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학부대학원백서'를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문과 생활의 터전인 경제학부대학원의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동문기고2
·학생기고1
·학생기고2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임선혜

경제학부 4학년

최근 2~3주간 교내에서는 성폭력 처리 과정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었다. 대자보가 붙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의 언제나 2~30명 가량의 학생들이 대자보를 읽는 데 열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약 2년 간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에 있었던 나로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학내의 이러한 관심은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지난 4년의 대학생활 동안 계속해 왔던 실망을 다시금 되풀이하게 되었다. 논쟁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웠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폭력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인 양 왜곡하려는 가해자의 궁색한 논리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욱 아쉬운 것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내뱉는 감정적인 말들과, 진지한 대화의 부족이었다.

4년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위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대학사회에서의 진지한 토론의 부족함인 것 같다. 우리들중 대부분은 토론 문화의 빈곤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곧잘 열악한 교육환경을 떠올리곤 한다.

학생 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교수님 수와, 상당수 전공 강의의 수강생이 100명을 넘는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지난 4년간 경제학부에서 수업을 들어온 나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도 높은 토론식 수업을 제안하는 일부 교수님들의 소규모 강의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또한 토론식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연습' 강의가, 상당수의 학생들에게서 '편하게 학점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어떤 과목이 수업 횟수와 과제가 가장 적은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을 보면, 대학 내에서의 토론의 빈곤은 단순히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대학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낀 문제의 하나는 우리들 중 대다수가 '토론'에 대하여 몇 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에 있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매우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글에 대한 비판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상대방 논리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에 나서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
리고, 이러한 모습은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문제에 앞서 진지한 토론 문화의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일부 발언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도 않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일삼게 되면, 진지한 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이들도 결국 계속적인 노력을 포기하게 마련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토론 문화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할 때만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물론, 특정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분명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적절히 이해된 지식은 토론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진정한 토론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 때, 거대한 철학이나 사상, 또는 정교한 이론의 무게에 눌려, 그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대화의 중요성을 망각하곤 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식의 습득에는 능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우리 학생 사회의 모습을 낳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1998년 이후 약 4년 동안 우리 대학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경제위기에 입학한 학번이라서 여유가 적어 보인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학번의 동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00, 01학번 후배들을 본다. 그리고, 한편에서 학생회를 꾸려나가는 이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만 있음을 걱정하기도 한다. 지난 4년 동안 때로는 학교 밖에서 삶을 배우려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관을 기웃거려 보기도 했지만, 대학생활을 거의 마쳐 가는 지금 나에겐 어느 한 쪽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옆에 있는 누군가와 우리 주위의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더 차분히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아쉬움만이 남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공부를 하며 대학생활을 채워나가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얼마 전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로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이번 학기에 나는 뜻하지 않게 매우 현실적인 철학 강의를 듣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무겁게 느껴지기만 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을 동료들로부터 듣던 중,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에서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꺼내셨다.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얘기라는 생각에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유명한 학자의 이름과 이론 못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대학생활을 마감해가는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